

“갑을관계 정상화 위한 대타협촉 만들자”

■ 김한길 민주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6월 국회서 경제민주화 35개 법안 처리

역외탈세 특위·원전 사태 국정조사 제안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5일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 경제주체들이 참여하는 ‘갑을관계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또 주요인사들의 역외탈세 의혹과 관련해 국회 내에 ‘역외탈세 및 조세도피 진상조사 특위’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반목이 국민을 ‘갑과 을의 나라’로 분열시켜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갑을관계를 법과 제도를 통해 대등한 관계로 자리 잡게 할 때 비로소 권 가르기가 아닌 사회통합이 실현될 것”이라며 6월 임시국회에서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등 경

제민주화를 실현하는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35개 법안을 처리할 것임을 약속했다.

김 대표는 위조부품 납품에 의한 원전사고와 관련, “이번 사태는 안전 불감증에 걸린 새누리당 정권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현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한 뒤 “원전사고의 재발방지 마련을 위한 국회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대선 때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박근혜정부는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울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황교안 법무장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목적과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재검토 주문은 법무장관 스스로 법과 양심을 저버린 행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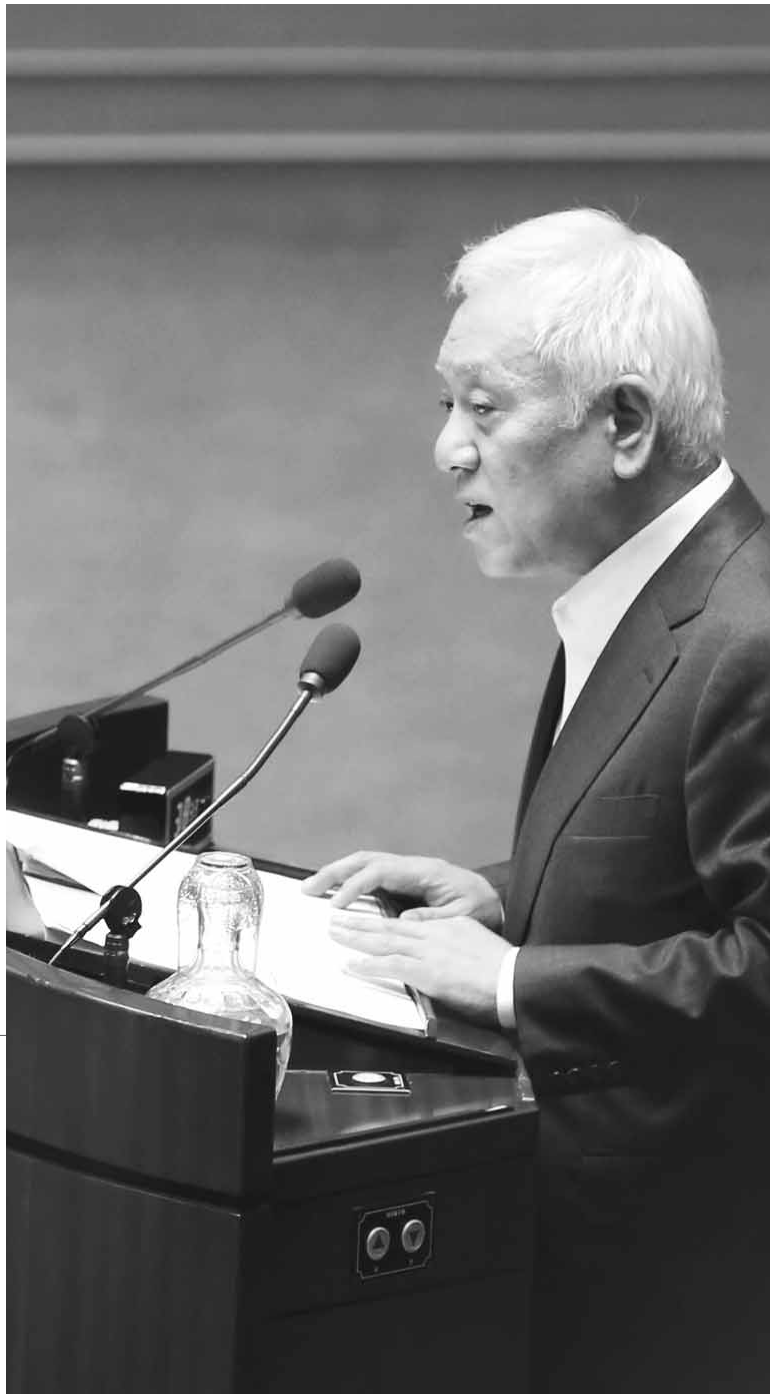
고 비판했다.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김 대표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불모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한 뒤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장기화하거나 개성공단 폐쇄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대화를 촉구했다.

현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목표에 대해선 “민주당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일자리 나누기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긍정 평가하면서도 ▲ 850만명 비정규직 문제 우선 해결 ▲ 최저임금 상향조정 ▲ 실시간 노동 단축을 통한 삶의 질 제고 등을 아울러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진주의료원 폐업은 사회적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도 어긋나는 것으로 마땅히 철회해야 한다”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새누리당 도시사의 변심과 일탈에 박 대통령이 침묵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박 대통령이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16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월 재·보선 7~8곳으로 줄 듯

재판 진행 15곳 중 항소심 무죄 등 일부 제외

새누리·민주당은 내심 안도...安 속내 복잡

오는 10월 30일 국회의원 재·보선이 치러지는 지역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5월말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역구 국회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받아 2심 이상의 재판이 진행 중인 지역은 모두 15곳.

10월 재·보선은 올해 4월1일~9월 30일 사유가 확정되는 지역에서 열린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상고심 재판부가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기 때문에 6월말까지만 결과가 나오면 이번 재·보선 지역에 포함된다.

문제의 15개 지역 의원들은 새누리당 정두언(서울 서대문) 윤진식(충북 충주) 박덕흠(충북 보은·육천·영동) 성완중(충남 서산·태안) 심학봉(경북 구미) 안덕수(인천 서구·강화) 윤영석(경남 양산) 이재영(경기 평택) 조현룡(경남 의령·함안·

합천) 의원, 민주당 배기운(전남 나주) 신장용(경기 수원), 이상직(전북 전주완산) 의원, 통합진보당 김선동(전남 순천·곡성) 의원, 무소속인 박주선(광주 동구) 김형태(경북 포항 남·울릉) 의원이다.

10월 재·보선이 ‘미니총선’ 규모가 될 것이라는 당초의 관측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일부 지역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은 5일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고, 이에 앞서 조현룡 의원도 지난달 31일 항소심 결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치권은 호남과 충청권 일부에서도 재판 결과 당선무효형에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부 지역은 재판 절차 지연으로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5일 당선무효형을 받은 무소속 현영희 의원은 비례대표여서 재·보선 규모와 관계없이 원래 소속이었던 새누리당이 한석을 승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재·보선이 치러지는 지역이 7~8곳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권은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다.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지니는 재·보선은 ‘여당의 무덤’으로 통했고, 선거 규모가 커질수록 정치적 의미가 더해졌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분위기다. 새정부 출범 첫 해여서 정권심판론 정서가 형성되기 이른데다, 저조한 지지율을 재·보선 때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독자세력화를 노리는 안 의원측의 속내는 다소 복잡해 보인다. 안 의원측에서는 최대 전력자인 수도권과 호남에서는 재·보선 지역이 늘어나야 첫 시험대로서의 의미가 커지는데 실제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왕바보’ 김정길 정계 은퇴

고 盧전대통령 동지...지역주의 맞서 7번 낙선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현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5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이제 저는 정치를 떠나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갑니다”라며 정계를 떠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역주의에 맞서 수없이 도전하고 좌절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며 “긴 세월 정치적 소신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라고 말했다.



령에 대한 의리로 버텨오셨는데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라고 적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였던 김 전 장관은 1990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3당 합당을 거부, 그 이후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부산에서만 야권후보로 출마해 모두 7번의 낙선을 거듭하면서 부산에서는 ‘왕바보’라는 별명을 얻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벽 토크 나선 이정현

청와대 기자실 찾아 불통 이미지 씻기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약속한 대로 5일 춘추담 ‘새벽토크’를 시작하며 청와대 ‘불통’ 이미지 씻기에 나섰다.

이 수석은 이날 오전 6시56분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에 나타났다.

이 수석이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를 건네며 기자실로 들어오자 기자들 사이에서는 “와~”하고 나지막한 탄성이 나왔다.

그는 “긴장이 꽤 짊어 안 와서 일찍 나왔다”고 운을 뗀 뒤 30여 분간 당·정·청 회의나 정부장관 신설 논란, 취임 100일 여론조사 등 현안에 대해 답했다.

이 수석은 이날 “조만간 국무조정실에서 야당에 정책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수석은 또 “지금 박 대통령의 관심은 오직 일자리와 경제”라며 “모든 것을 그쪽으로 연관시키고 발전 힘수도 늘어나고 있고, 장관들에게 재근하고 질문하고 보고받는 것도 일자리와 경제 분야가 많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수석은 “청와대 홍보, 대통령 홍보를 어떻게 할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할 외국 선진국이 대변인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관련 책을 5권 구했다”고 밝혔다. 외국의 대변인실 운영 형태나 방식을 참고해 좋은 점을 벤치마킹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 수석은 “책에서 발견한 중요한 것이 있다”며 “우리 기자들은 왜 대통령을 힘들게 하는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미국 기자들은 훨씬 더 강하게 괴롭혀 백악관 대변인과의 갈등이 우리의 100배나 되더라. 그래서 나도 많이 참으려 한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0일을 전후로 언론이 제기한 국정 운영에 대한 각종 지적에 대해 “하나하나 귀 기울여야 할 부분이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적이라고 본다”며 “아주 잘못된 팩트 외에는 국민의 뜻으로 알고 하겠다”고 언급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與도 조기 지방선거 체제

민주당에 이어 새누리당도 내년 6월 지방선거 준비 체제를 조기에 가동할 태세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인데다, 선거 결과가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선거 승리시 여권은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패배할 경우 정국의 주도권이 야권으로 넘어가면서 집권 2년차부터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다는 분석이다.

황우여 대표는 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사무처 월례조회에서 “4월 재·보선도 마쳤고 이제는 내년 지

방선거 준비에 들어갈 때”라면서 “지역에 다녀보면 전부 지방선거 얘기만 하는데 당도 이제는 지방선거를 머리와 가슴 속에 담고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일각에서 대선 승리 후 우리가 느슨해진 것 아닌가 걱정하는데 10월 재·보선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잘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서 “그러나 마음만 갖고는 안 되고 각자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독려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3년 10월 01일

굿모닝 메디컬 타운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에 탄생합니다!

굿모닝 스포테인먼트 타운

상업용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